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1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수, 금요일 (오전 9 시-오후 8 시). 화 (오전 9 시-오후 6 시),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성서 사도직을 위한 기도 ○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받으소서. ●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주시니 감사하나이다. ○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열을 새롭게 하시어 성서를 가까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주소서. ●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6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3/13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3/20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3/27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성인복사
4/3	박 니콜라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28	\$ 215.00	—	\$ 150.00

*미사책대금: \$55.00

2016 년도 미사책값: \$ 55

2016 년도 미사책 값은 \$55 을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성주간 안내

3/20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3/24 (목): 성주간 목요일, 3/25 (금): 주님 수난 금요일.

3/26 (토): 성 토요일. 부활성야.

3/27(주일):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 전례 일정은 다음 주일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말씀의 이삭

하느님의 딸이 되기까지

강예원 켄마 | 영화배우

영화배우로 데뷔하던 때, 주보에 있는 말씀의 이삭을 읽으며 나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바람은 시간이 흘러 만물이 소생하는 봄 3월에 교우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사순 시기에 주님을 기억하고 제가 받은 은혜들을 되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의 영화 촬영 장소로 이동하거나, 멀리 여행을 갈 때 제가 항상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묵주와 묵주기도서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과 저만이 함께하는 순간이며, 하느님의 딸로서 진정한 안식과 사랑을 몸소 체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 다.

저는 친가, 외가 모두 천주교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유아세례를 받은 것은 당연지사였고, 또래 아이들과 사회적 교류를 처음 시작한 것도 성당을 다니면서였습니다. 레지오마리아에 회장을 지내셨던 아버지와 새벽미사와 성당 봉사활동에 열심이신 어머니, 그리고 복사 출신인 남동생을 둔 저로서는 9시 뉴스가 끝나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여 묵주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루를 마감하는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에는 누구나 그렇듯 반항심도 있었고, 가족들과 묵주기도를 드리는 시간이나 외식을 할 때 늘 거치는 기도의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의 첫번째 난관이자 하느님의 관심과 사랑을 진심으로 갈구하게 된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입 실패 후, 재수를 하는 동안 하느님께 진정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간청하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앙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 동 체 소 식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

지난 2 월 10 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시기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에 ‘십자가의 길’ 전례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3 월 평협 임원회의: 3/13 (주일) 저녁 7 시

3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3 월 13 일(주일) 저녁 7 시에 있습니다.

3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 3/20 (주일) 아침 8 시 미사 후

3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세째주일인, 3 월 20 일 주일

홀리스를 위한 봉사활동: 4/2 (토) 아침

베이커스필드 한인공동체에서 ‘홀리스를 위한 아침식사 제공’ 봉사활동 일정이 4 월 2 일(토)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 월 11 일 수술후 회복중인 이요셉 형제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분들이 주님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미사용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당에 비치되어 있던 공용 성가책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반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무섭고 두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기도문을 외우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면 항상 하느님이 제 옆 에 계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며, 하느님의 딸이 되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반강제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던 시간이 지금에 와서는 제 일상이 되었고, 어떠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습관이 되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자비롭 게 저를 지켜봐 주시는 하느님께, 어떠한 부분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앎이 부족할지언정 당신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고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딸로서 늘 기도하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교리상식]

왜 신부님의 제의 색은 계속 바뀌나요?

사제가 입는 제의의 색에서 그날 미사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백색은 부활절과 성탄절, 성모 마리아와 천사의 축일, 순교자가 아닌 성인 축일에 입습니다. 홍색은 주님 수난 주일, 성금요일, 성령강림일, 십자가 현양일, 순교자 축일에 입고 녹색은 연중 주일과 그 기간에 입습 니다. 자색은 대림시기와 사순시기, 위령미사 때에 입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장례미사와 연미사, 황금색은 대 축일에 입습니다.

<서울주보에서>